광주시, 노후 하수도 정비 시급

매년 증가…땅꺼짐 현상 중 84%는 '하수관 균열'

올해 말부터 노후 하수관 보수사업 본격 추진 전망

도심 도로에서 땅꺼짐 현상이 해마다 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땅꺼짐의 가장 큰 원인이 하수도관(우수·오수관) 균열로 집계돼, 노후 하수도관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땅꺼짐 현상은 11건 발생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20건으로 늘었다. 올해(1월~8월)에는 38건이 발생해 매년 땅꺼짐 현상이 늘고 있다.

또 최근 3년(2015~2017) 동안 발생한 땅꺼짐 89건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75건이 하수관 균열에 따른 토사 유실·지반 약화로 확인됐다.

최근 발생한 땅꺼짐 현상도 하수도관 균열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30분께 남구 봉선동 한 중학교 앞 이면도로에서 지름 2m, 깊이 2.5m 규모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남구는 앞서 내린 폭우로 노후 하수도관에 생긴 균열 사이로 토사가 유실돼 땅이 꺼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2일 오전 9시55분께에는 북구 우산동 한 볼링장 인근 2차로에 지름 30㎝, 깊이 1m가량의 땅꺼짐 현상이 발견됐다.

침하원인은 우수관 균열로 인해 물이 지반에 스며들어 땅이 꺼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6년 기준 광주시의 하수도관 총연장 길이는 4339㎞였다. 이 가운데 52%에 해당하는 2277㎞가 20년 이상 된 하수도관이었다.

광주시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하수도관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12월부터 오는 2022년까지 노후 하수도관의 교체·개량사업에 나선다.

시는 1단계 사업으로 시비 208억5800만원을 포함한 총 260억7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후 하수관 총 16.831㎞ 길이·1531곳에 대해 우선 정비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노후 하수관로의 이음부 등이 파손되면서 땅꺼짐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말부터는 노후 하수관 보수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예산 등의 문제로 하수관 전면교체는 어려운 점이 많아, 부분개량·보수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노후화 우려 때문에 20년 이상 된 하수관은 더욱더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광주시의회는 땅꺼짐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추진내용을 담은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서은홍 기자

전남경찰, 3개월 간 강·절도 특별단속

전남경찰청은 9월3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간 강·절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산물 수확기와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관련 범죄 증가가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단속기간 경찰은 상습적 사범 검거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강·절도 빈발 지역에 대한 예방적 형사활동도 펼친다.

9월 한 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은 또 9월 한 달 동안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지난 4월 1차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에는 총기류 17정, 화약류 290점, 도검·분사기 19점 등 총 326점의 불법무기류가 수거됐다.

김정환 기자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추석 앞두고 벌초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3주 가량 앞둔 2일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묘지에서 관리인들이 벌초를 하고 있다.

성비위 사건에도 징계받지 않는 기간제교사 관련법 '허술'

현행 교육법 징계대상 포함 안돼

최근 발생한 기간제교사의 성비위 사건을 계기로 기간제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간제교사는 정교사와 달리 문제를 일으켜도 계약해지만 하면 별도의 징계도 받지 않으며 다른 학교에 다시 채용될 수도 있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367곳에 기간제교사 735명이 근무중이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임용한다.

최근 들어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급 수 감축을 대비해 정규교원을 선발하는 대신 기간제교사로 대체하고 있다.

기간제교사는 광주시교육청이 일년에 한 번씩 인력풀을 구성해 일선 학교가 임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사립 모두 학교장이 자체 전형을 통해 채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기간제교사가 성비위 사건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켜도 정규교원처럼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학교장은 문제가 있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곧바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사건을 축소하려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징계를 받지 않고 사건이 축소된데 따라 형사처벌만 피하면 다른 학교에 기간제교사나 정규교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최근 성비위 사건을 일으킨 기간제교사가 근무한 학교도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한 당일 구체적인 사건 경위도 파악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계약을 해지했다.

현재 해당 기간제교사가 성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학교 측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진상파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교사는 징계위원회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면권도 학교장에게 위임돼 있어 문제가 발생해도 학교장이 계약을 해지하면 민간인 신분이 돼 교육청이 조사할 권한도 사라진다.

조인호 기자

여수서 벌초하던 50대 벌에 쏘여 숨져

2일 오전 10시15분께 여수시 화양면의 한 야산에서 A(59) 씨가 벌에 쏘였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숨졌다.

경찰은 "묘소 주변에서 벌초작업을 하던 A 씨가 말벌에 쏘였다"는 A 씨의 형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순천서 승용차·오토바이 추돌…3명 숨져

2일 오전 4시57분께 순천시의 한 병원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A(33)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우즈베키스탄인 B(32) 씨 등 3명이 숨졌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 A 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주 재개발지역서 빈집 턴 50대 영장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재개발지역 내 빈집을 턴 혐의(절도)로 김모(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25분께 광주 서구 한 주택에 침입해 에어컨 실외기·커피머신 등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총 480만원 상당의 생활가전제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재개발을 앞두고 주민들이 이사를 준비한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갖고 있던 열쇠가 현관문 열쇠 구멍과 비슷해 보였다. 열쇠로 문을 열고 침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김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으며, 훔친 물건을 인근 고물상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 거제 다가구주택에 불지른 50대 체포

경남 거제의 한 다가구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40분께 거제시 능포동의 4층 짜리 다가구주택 건물 3층 복도에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건물 내부 벽면 15㎡와 출입문 등을 태우고 10여분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18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과의 '관계'를 의심해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는 원룸 현관 앞 복도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총 9가구인 다가구주택에는 A씨의 식당에 근무하는 30대 종업원을 비롯해 4가구의 입주자들이 주거하고 있어 자칫 큰 인명피해를 낳을 뻔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짝퉁' 골프의류 팔아 3억 챙긴 일당 적발

SNS(사회관계서비스망) 내 '골프 모임' 회원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짝퉁' 골프의류를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유명 골프의류 위조품을 판매한 업체대표 박모(32) 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배송 등을 담당했던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1월2일부터 올해 7월18일까지 골프 모임 성격의 네이버 밴드(인터넷 커뮤니티) 30개를 개설하고, 이 밴드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해외 유명 골프의류 위조품 3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밴드에 '파리게이츠', '타이틀리스트'와 같은 고가의 골프의류를 최대 반값에 판다는 홍보글을 게시했고 회원들로부터 일대일로 주문을 받아 위조품을 보냈다.

조사 결과 상품을 구입한 회원들 모두 위조품이란 점을 알고 구매했다.